사진 뒷열 왼쪽부터 새로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근일 · 설정 · 월탄 · 인환 · 정관 · 암도 · 종하 스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앞열 왼쪽 여섯번째),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앞열 왼쪽 다섯번째),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앞열 오른쪽 다섯번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열 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조계종 원로 스님들

모든 중생을 교화해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3년만의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거행…법보종찰 해인사서 일곱 스님 품수

40년 넘게 수행에 매진하며 덕망을 쌓아온 조계종 원로스님에게 품서되는 조계종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 수행력과 덕망의 상징인 대종사를 품서하는 대종사 품서식이 3년 만에 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1월 24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 정관 · 월탄 · 암도 · 종하 · 근일 등 7명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2004년과 2008년 대종사 법계 품서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법계 품서식을 통해 대종사는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고불문, 품서자 헌화, 품서자 대표 인환 스님의 서원문 낭독, 법계증 및 가사 수여, 청법게, 법어, 품서자 대표 정관 스님의 발원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자 봉정, 사홍서원, 폐회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한겨울로 접어드는 추위 속에서도 500여 사부대중은 이날 조용히 법계 품서식을 지켜보며 종단 승풍 진작을 발원했다. 품서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 원로의원 진제 · 도문 · 원명 · 명선 · 월서 · 혜승 · 현해 · 월파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이 참석해 신임 대종사 스님들을 축하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이날 대종사 품서 스님들에게 직접 법계증과 대종사 휘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내리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념정진(勤念精進)으로 터득한 불조대기(佛祖大機)로 모든 군생에 이택(利澤)을 입히고 사해를 빛나게 하여 불조의 정인(正因)과 강령(綱領)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도 이름뿐이라고 했는데 대종사(大宗師)란 지위에 얽매여서 되겠는가"라고 물으며 "자기 본분을 밝히는 본분철추(本分鐵錐)로 현관을 열게 되면 불조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되니 그 자비심을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대종사 비구들이 오랜 세월 선근인연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번뇌를 여의고 지금 이 법석에서 큰 서원을 발하옵고 역대전등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한다"며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수지해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 하옵니다"고 발원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자 대표로 나선 원로의원 인환 스님은 서원문 낭독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고 크게 외친 뒤 "신명이 다하도록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품수자 스님들은 새로이 품수받은 대종사 가사를 정대하며 다시 한번 중생 제도를 서원했다.

품수자 대표로 나선 정관 스님은 부처님을 향해 "이 자리에 함께 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발원한다"며 "불법을 증장하고 종단은 나날이 발전하며 법의 수레바퀴 쉼 없이 굴러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해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자(拂子)'를 봉정하며 대종사 품수를 축하했다. 불자는 불교에서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 · 번뇌를 떨어내는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불구(佛具) 중 하나로 대종사의 상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정관 스님의 서원문 낭독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

대종사 가사 정대

대종사 법계증 및 25조 가사 품수

현봉 근일(玄峰 勤日) 스님

1961년 은해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역임
재심호계위원 역임
부석사 · 삼보사 조실
제9 10 11 12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능인학원 이사, 이사장 역임
(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 원로회의 의원

송원 설정(松原 雪靖) 스님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역임
서울 화계사 회주 역임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역임
세계종교협회 공동대표 역임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역임
(현) 법계위원
(현) 덕숭총림 방장

미룡 월탄(彌龍 月誕) 스님

1955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역임
중앙종회 의장, 수석부의장 역임
총무원 총무부장 역임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역임
불교신문사 사장 역임
초심호계위원장 역임
(현) 원로회의 의원

호암 인환(顥菴 印幻) 스님

1953년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6년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동경대 대학원 교수 역임
(역)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 일본불교학회 · 인도불교학회 회원, 조계종 법계위원
(현) 원로회의 의원

불국 정관(佛国 正觀) 스님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역임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역임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역임
(현) 영주암 회주
(현)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 이사
(현) 원로회의 의원

여산 암도(如山 岩度) 스님

1955년 백양사에서 덕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역임
총무원 부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역임
경찰대학, 동국대 선학과 강사 역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역임
(현) 마하무량사 주지
(현) 원로회의 의원

진산 종하(晋山 鍾夏) 스님

1959년 해인사에서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8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봉암사, 선본사 주지서리 역임
능인포교당, 봉원사, 조제암, 관음사 주지 역임
불교방송 이사장 역임
(현) 원로회의 의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 제 포 교 사 (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